나주 SRF(고형폐기물) 갈등 심각하지만

순천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경쟁 뜨겁다

4~5곳 공모 관심…300억 인센티브 지역발전 기회로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지역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에 4~5개 마을이 유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NIMBY·내 뒤 마당에는 안된다)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공모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입지 후보지 마감(9월 2일)이 20여일 남은 현재 향동 A지역, 서면 B지역, 별량 C지역, 월등 D지역 등이 마을주민과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유치 신청을 준비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입지 후보지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각종 혜택과 인세티브 등을 받고 유치하면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달 5일부터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청 조건으로는 10인 이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여기에 최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고, 주거지와 격리정도를 고려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토지이용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4~5개 마을이 유치 경쟁에 뛰어 든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각종 지원책이 인식전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순천시는 입지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50억원을 포함해 폐기물 반입수수료 10%를 지원하고 주민 우선 채용, 편익시설 설치, 지역개발 사업비 40억원, 마을숙원 사업비, 주민 유급 감시요원 위촉 등 300억원 내외의 기금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적극적인 홍보도 유치 경쟁에 한 몫했다.

시는 지난 5월 소각시설의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과 10년 이상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충남 아산, 경기 광명의 소각시설을 견학했다.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역회의에 참석, 최소한의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책과 최첨단 시설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입지에 뒤따르는 각종 지원대책을 충분히 알리고,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토지소유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 인식의 전환을 갖게 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종 입지선정과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완벽한 시설 설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아름다운 바닷길 따라 드라이브 즐긴다

서남해안 해안도로 안내지도 'KR 777.전라' 배포

전남도와 전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여수에서 군산까지 서남해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낭만적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서남해안 해안도로를 선정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북 및 17개 기초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서남해안 해안도로 노선을 발굴해 이를 'KR 777.전라(Korea Road 777)'로 명명하고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했다. 'KR 777'은 부산에서 서남해안을 따라 경기 파주를 잇는 국도 77호선과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이 합쳐진 한반도 전체의 해안도로 개념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경관이 수려한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안도로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남해안 해안도로 발굴을 계기로 해안경관을 즐기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KR 777.전라'는 전남·북의 경관이 수려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1,228㎞의 해안도로로 국도 뿐만 아니라 지방도 및 시·군도를 포함하고 있다.

해안도로 1228㎞ 중 국도는 604㎞, 지방도 298㎞, 시·군도는 326㎞다. 이 가운데 새만금해안도로 등 14개소 핵심 주요 구간(569㎞)은 해안도로 명칭을 부여하고 지역별로 상세화하였으며,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해안도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안도로 시종점을 별도로 표기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향후 해안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안내 표지판을 개발·설치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주변 쉼터 및 볼거리·먹거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흥 익산국토청장은 "KR 777.전라는 향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안도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안관광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독도 방어훈련 할 것"

정의용, 해경·육해공군 참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1년에 두차례 했는데 올해는 어떻냐'는 추가 질의에 "금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해경이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 전원이 다 참가하게 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사과하라" 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9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추가 규제없이 수출 숨통 유지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1일께 中서 열릴듯

NHK, 한일 회담도 조율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께 중국 베이징(北京) 교외에서 열릴 전망이다.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3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NHK는 예상했다.

방송은 "이에 맞춰 한일, 중일의 개별 회담 개최도 조율되고 있어 양국 간 현안 사항이 협의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의 개별 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어 징용문제와 수출관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회담이 실현되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일 태국에서 열린 데 이어 또다시 개최되는 것이다. 방송은 "일본 외무성은 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며, 일본의 수출관리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투 자 하실분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대지 393㎡ 2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7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남동 빛고을cc 뒤 남향 652㎡ 생활편리지역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 8232㎡ 그린벨트 임 9억4800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쌍촌동 소방도 접 118㎡ 나대지임 투자에도 양호 1억6천2백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함 13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國家公認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